조계종, 9월 불교도 대법회 역량 모은다

직할교구 회의서 적극 참여 당부
"아이디어 반영할 것" 결집 요청
포교원, 교구본사 국장 회의에서
수계법회 신청·책임자 선정 주문

임은호·김내영 기자

'2024년 불교도 대법회'가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봉행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전방위 역량 결집에 나섰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주요사찰들에게 K-명상의 세계화 염원을 담아 적극 참여를 요청했고 포교원도 세세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도 직할교구 주요사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사찰 주지스님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동참과 결집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도대법회는 직할교구 주지스님들의 절대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에 어울릴 수 있는 대법회를 통해 국민들이 불교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회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을 통한 우리불교의 참모습을 선보이는 자리이자 스님들에 대한 예경을 불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특히 국제선명상 대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K-명상 세계화 선포를 통해 새로운 포교방식의 물코를 틀 것"이라면서 "K-명상 전법은 불자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반영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할교구 사무처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주지스님들에게 △봉행위원회 조직구성 동참 △사찰별 수계 신청자 모집(8월 12일까지) 및 실무책임자 선정 △승보공양 명단 제출 △안전계획 사전 수립 등을 요청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8(2024)년 제1차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어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포교원은 각 교구본사에 500명 기준 수계 신청자 접수, 승보공양 스님 명단 제출, 실무 진행과 관련한 안내·공유·점검을 위한 책임자 선정 등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청했다. 특히 3만명 규모의 행사로 계획된 만큼 교구본사별로 사전에 단체 이동과 안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포교원과 포교국장 스님들이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함께 전법도생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다.

'2024 불교도 대법회'는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봉행된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증명하는 이번 법회는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와 600여 스님들이 참여하는 승보공양법회, 국제 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불자 대상 전통문화 재현 행사로 봉행되는 수계법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계사로 진행되며 사부대중 3만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승보공양법회는 600명 스님이 육법공양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재하에 로시 조안 핼리팩스, 툽텐 진파, 차드 멩 탄, 팝루 스님, 직메 린포체 등 해외 유명 명상가와 국내 명상 전문 스님들이 함께 하는 선명상 실참으로 구성됐다.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민 염원을 결집하는 국민 음악회에는 트로트 가수 김태연, 락커 김경호, 아이돌 그룹 등이 출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법회 기간 내내 광화문광장 옆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에서는 전통등 전시 및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전통한지로 제작된 장엄등 20여점이 전시되며 명상 마당, 전통 마당, 청년마당, 템플스테이마당 등 4개 주제로 20여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문화사업단, 2차 전통사찰순례 회향식

7월 15일, 회향증서 전달해
총 54명 관음성지 33곳 순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한국 대표 관음성지 33곳을 순례한 이들에게 회향증서를 수여했다.

문화사업단은 7월 15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2024년도 한국전통사찰순례 2차 회향식'을 진행했다. 2차 순례에는 총 54명이 회향했다. 이날 회향식에는 5쌍의 부부를 포함, 총 28명의 순례자가 참석해 회향증서를 받았다.〈사진〉

회향증서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한 '한국전통사찰순례' 책자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해 해당 사찰의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대우 스님은 "전국 33곳의 관음성지를 순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돌아보고 밝은 정신을 일깨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사업단은 인장첩의 다양화 등 끊임없는 개선·보완을 통해 순례자들의 원만한 순례를 돕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순례 회향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순례의 의미와 소감 등을 나누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현수·김미현 부부는 이번 순례가 부부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 임현수 씨는 "조계사를 시작으로 해인사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부부가 함께 사계절을 자연에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이었다"며 "요즘 주변에 (한국전통사찰순례를) 홍보하고 있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1번 해볼 만한 의미 있는 순례"라고 말했다. 아내 김미현 씨도 "33곳을 다니며 각 사찰의 주련을 유심히 봤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번뇌를 털어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사찰순례는 2008년 시작돼 지금까지 404명이 회향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청 홍보대사에 관서현보살·배드보스 위촉

7월 17일, 위촉장 수여
"청년 포교 활성화 기여"



대불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오심 스님, 관서현보살, 장정화 회장, 배드보스, 각운 스님.

가수 관서현보살과 팝아트 미술작가 배드보스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대불청)의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돼 청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7월 17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관서현보살(서현진)과 배드보스(조재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보대사 임기는 1년이다.

위촉식에는 대불청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심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과 각운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이 참석해 불법 홍포를 위한 홍보대사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오심 스님은 "같은 청년의 시선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포교에도 일조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뉴진 스님, 관서현보살을 비롯해 젊은 불교를 이끌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 생산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각운 스님도 "대불청의 홍보대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장정화 회장은 "(홍보대사들과)침체된 한국불교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늘 노력하는 대불청이 될 것"이라며 "결과가 안 보인다고 주저하지 않고, 한국불교의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해나가겠다. 대불청 지회·지구 활성화로 발전된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불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드보스는 팝아트 미술작가로,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청년불자 포교를 목적으로 보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불자 아티스트, 불자 밴드, 불자 트로트 가수, 불자 아이돌 기획을 준비 중이다.

관서현보살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서현진은 현대적 음악과 불교를 융합시킨 노래로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 '귀의합니다' '단 하나의 진리를' 등 찬불 EDM을 불러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배드보스는 "연예·문화 기획자로 20년간 활동해왔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 불교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뿌듯함을 느꼈다"며 "무겁고 엄숙한 불교가 아닌 '힙한 불교'를 전하기 위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생산해, 불교의 대중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서현보살은 "관서현보살을 활동명으로 여러 무대에서 공연하다 보니 '관세음보살'을 공부하고 불교를 알아가고 있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만큼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교박람회,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곳에서 찬불가 공연하며 재미있는 불교의 모습을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지구를 위해! 채식하는 복날 어떠세요?

불교환경연대, '복날 채식 캠페인'
채식 보양식 레시피·소감 공유
기후위기알리기, 채식 피켓팅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탄소 발생의 주 원인이자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초복(7월 15일)부터 말복(8월 14일)까지 한 달간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맛있게 즐겁게 지구를 위한 한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육류 보양식 대신 채식 보양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여름철 채소 요리 레시피 영상 △윤리적·환경적 채식의 장점을 담은 카드뉴스 △채식 권장 숏폼 영상 등의 콘텐츠를 SNS를 통해 배포한다. 캠페인 기간 불교환경연대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채식 경험과 소감, 응원 메시지를 남겨준 참여자에게는 '채식 권하는 북극곰' 키링도 증정한다.〈사진〉

생활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녹색사찰에는 캠페인 카드뉴스, 환경법회를 위한 환경보호 법문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채식 권장 콘텐츠 배포와 더불어 복날 채식 캠페인 피켓팅도 진행한다. 불교기후행동 집중행동의날인 7월 26일,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민·관광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채식을 권유한다.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복날 채식 캠페인에 대해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복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가령 수습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31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정 : 9월 21일~28일(6박8일)
10월 13일~20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중국 3대석굴중에 하나인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도량인 오대산 성지순례입니다.
동참금 | 159만원 8월 21일 출발~25일 도착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3차 8월 24일~9월 8일(16일간)
동참금 | 55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